

# 아나톨리아의 도시들: 괴베클리테페 (Göbeklitepe)와 차탈회육(Çatalhöyük)



강사: **김중순** 교수

계명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학위를, 짜르부뤼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로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 저널 *Acta Koreana* 와 *Acta Via Serica*의 편집장을 겸하고 있다. 샤머니즘을 비롯한 고대종교와 문명교류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Birdman: Pathfinder of Korean Shamanism*, 『문화의 이해와 다문화교육』, 『이슬람, 그 반역의 역사』, 『횡으로 읽는 문명 이야기: 중반구와 글로벌 르네상스』 등이 있다.

아나톨리아는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지역 반도,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영토의 대부분을 가리킨다. 이곳에서는 유럽 대륙과 마주하면서 예부터 교역과 교류의 중심지로, 수많은 집단들이 이합집산을 이루었다.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프리기아, 리디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등 여러 왕조와 정권이 부침을 거듭한 인류 역사의 생생한 현장이다. 덕분에 이 지역에는 그들이 남긴 수많은 유적과 유적지가 산재해있다. 에덴동산, 노아의 방주가 정박했던 알라라트산, 아브라함의 고향, 사도바울의 생가, 성모 마리아가 여생을 보낸 곳, 7개의 초대교회, 니케아, 에페소스, 칼케톤 등 초기 기독교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가 하면, 수피즘의 본산인 콘야처럼 이슬람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나톨리아에서는 1만 2천 년 전 문명의 흔적이 괴베클리테페(Göbeklitepe)에서 발견되었고, 9천 년 전 정착 공동체 문명의 흔적이 차탈회육(Çatalhöyük)에서 발견되었으니, 이 땅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터키 민족사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명사이다.